

# 국모닝충청

HOME > 클릭충청 > 대전

## 대전시청 대형유리창에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설치 추진

✎ 이동우 기자 | ☎ 승인 2025.06.16 09:29

세계적인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작품 설치 검토



카이스트 학술문화관에 설치된 김인중 신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사진:카이스트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대전시청사에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화가인 김인중 신부의 작품이 설치될 수도 있다.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사제 예술가인 김 신부의 작품을 대전시청사 2층과 3층의 대형유리창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부는 충남 부여가 고향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으며 도미니크수도회에 한국인 처음으로 들어가 수사신부가 됐다.

김 신부는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리 조각이 아닌 단일 유리판에 그림을 그려 소성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독보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유럽의 여러 성당에 그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그의 작품은 종교색을 띠지 않으며,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작품으로 투과되는 빛에 따라 다양한 입체감과 색을 드리워 '빛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루아르 지역의 고성인 상보르성에서 한국인 최초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에는 카이스트(KAIST) 학술문화관(중앙도서관) 천장에 김인중 신부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대전시는 카이스트의 제안을 받아 대전시청사에 김 신부의 작품 설치를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신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이 취임하면서 작품 설치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를 김 신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신부는 작업비와 설치비용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김 신부의 작품이 설치되면 대전을 상징하는 명품건축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 남문 광장과 보라매공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2층 로비에는 작품을 투과한 빛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색채를 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2층 로비와 광장에 카페 등이 들어오면 시민의 힐링 공간은 물론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신부님과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대전시청을 명품건축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며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과 창의적 장소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